

“일 수출규제 대응 소재·부품·장비 2022년까지 5조 투입”

정부 28일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대책 회의
“핵심품목 R&D 예타, 경제성 분석 대신 효과성 분석 적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조기 안정과 상용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정부 예산 5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청은 제품·원료의 일본 의존도 및 국내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R&D(연구개발) 대응이 필요한 우선품목 100개+α(플러스알파)를 4개 유형으로 선별해 진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오는 12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또 핵심 전략품목의 조기 기술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사업 지원 대상 품목·기업에 신속히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확정된 1조9200억원 규모의 3개 연구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

다고 강조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관련한 예타 시에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 관련 R&D 사업의 경우 경제성(비용편익·B/C) 중심 분석 대신 효과성(비용효과·E/C) 중심 분석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정책 지정 R&D 사업에 참여하는 주요 대기업에 대해서는 연구비 매칭 기준을 기존 50%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40%로 인하여 핵심품목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형 R&D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핵심품목 R&D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소재·부품·장비특별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소속으로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실무추진단을 만들어 9월 이내 가동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논의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은 이날 총리 주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될 예

정이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부터 시행되는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와 관련해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품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대체 수입처 확보를 지원하는 등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피해기업 차입금 만기연장, 신규유동성 확보, 신속통관 지원 등 범부처 차원의 지원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윤 수석부의장은 “당정청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상호 호혜적 자유무역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며 국제법 절차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정세균 대책위원장과 최재성 일본경제전략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윤 수석부의장,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성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각각 자리했다. /연합뉴스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 일시: 2019. 8. 28.(수) 0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306호 정책위원회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민 과기부 장관, 정세균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 위원장, 최재성 일본경제전략특별위원회의 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우리 경제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문대통령 유턴기업 현대모비스 차부품공장 기공식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첫 대기업 공장 ‘유턴’ 사례인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 울산공장 기공식에 참석했다.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이날부터 한국에 대한 2차 경제 보복 조치로 한국을 통한 철차에서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 날 친환경차 부품공장을 찾아 미래성장동력 발굴 및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의지를 부각한 셈이다.

이날 기공식은 울산광역시 이화산단에서 열렸으며,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장 착공을 축하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현대모비스는 그동안 중국에서 운영하던 부품공장 2곳의 가동을 중단하고서 이화산단에 새 공장을 세우기로 했으며 이는 대기업 공장 중 첫 유턴 기업(저렴한 인건비 등의 이유로 해외에 진출했다가 다시 국내로 돌아온 기업) 사례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현대모비스 공장도 5개 부품기업의 복귀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 복귀를 위해 투자하는 기업들에 아낌없는 지지와 지원을 보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가 흔들리고 정치적 목적의 무역보복이 일어나는 시기에 우리 경제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경제를 지키자는 의지와 자신감”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여수 방문 박영선 장관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

일 경제 보복 대응 펀드 약정 불물
문대통령 이어 김영록 지사도 가입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28일 오후 전남 여주시 농협중앙회 여수지점을 찾아 NH-아문디 필승코리아 펀드를 가입한 뒤 통장을 받고 있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문재인 대통령도 가입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대통령부터 정부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장에 이르기까지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부품·소재·장비 분야 국내 기업을 응원하기 위한 것으로 당분간 펀드가입이 붐몰을 이룰 전망이다.

28일 청년상인,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여수를 방문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행사에 앞서 농협중앙회 여수지점을 찾아 NH-아문디 필승코리아 펀드에 가입했다. 이 펀드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가입했다.

박 장관은 이어 여수중앙시장 청년몰에서 청년상인,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부터는 전통시장을 스마트 상점화해 온라인 매출을 늘리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전통시장의 환경 개선에 집중해왔다면 앞으로는 온라인에서도 쉽게 상품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전통시장 상인들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만큼 전통시장에 매니저를 도입해 기획하는 일을 도와드릴

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과 청년상인들은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한 청년 상인은 “대출을 받으려면 상반기에 소진이 돼 필요할 때 대출받기 힘들다”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대출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갑주 전남소상공인협회 대표는 “제로페이도 실제로 가맹점은 많은데 사용자가 적다”며 “제로페이가도 사용한 만큼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NH농협은행 전남도청 지점을 방문해 ‘NH-아문디(Amundi) 필승코리아 주식형 펀드’ 가입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오늘은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시행되는 첫날”이라며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기술 국산화,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부품·소재·장비 분야 국내 기업을 응원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그림자 놀이 하듯...미술이 된 자연현상



(280) 그림자

현대미술이 어렵다고 하는 친구와 지인들에게 미국의 유명한 미술사가인 메리 앤 스타니스제프스키의 ‘이것은 미술이 아니다’라는 책을 선물한 적이 몇 번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아는 미술은 미술관에 전시되고 박물관에 보존되며 수집가들이 구매하고 대중매체 내에서 복제되는 그 무엇으로, 대부분 우리의 문화에 의해 차용되어 미술로 변형된 것”이라고 말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결국 다양한 제도들에 의해 형성되고 정의되는 것”임을 강조한다.

사물들이 어떻게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되면서 미술이 되는지를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어 개인적으로는 좋은 현대미술 입문서로 추천하곤 했다.

얼마 전 방문한 런던 테이트 모던에서 ‘올라푸 엘리아슨’(1967-)의 ‘In Real Life’전을 관람하면서 오늘날 미술이 무엇인지, 미술 아닌 것이 무엇인지, 아니 세상의 모든 가능성의 미술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았다. 런던 전 이전에도 그동안 올라푸 엘리아슨은 덴마크와 아이슬란드의 광활한 자연을 보며 성장했던 작가답게 그린란드 빙산을 미술관으로 옮겨 놓을 때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가 하면 거울과 수백 개의 전구로 오렌지색 인공 태양을 만들어 전시하기도 했다.

작품 ‘당신의 불확실한 그림자’(2010년작)는 갤러리 공간에 무지개와 같은 자연현상을 연출하고 관람객이 그 앞을 지나가면 다양한 그림자가 무지개 빛깔만큼 상호작용으로 나타난다. 그리



엘리아슨 작 ‘당신의 불확실한 그림자’

새로운 것 없는 미디어 아트이지만 그 작품 앞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림자놀이를 하듯 저마다 자신의 형상을 그림자에서 찾으며 즐거워한다. 전시장 안에서 완벽하게 안개로 가득한 공간을 지나오거나 비를 만나기도 하면서 자연의 현상을 미술관 안으로 들여온 작가의 상상력에 감탄하면서도 미술이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묻게 된다.

<광주시립미술관학예관·미술사박사>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1652 point
68247581
251649783
130758492
246371280
462610973
576214302
691749802
87414002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